

# “제3지대” vs “통합없다”

### 민주평화당 분당사태에 내홍 겪는 바른미래당도 설왕설래

박주선 “중도·실용·개혁·민생 동의 세력, 제3지대 만들어야”

하태경 “안철수·유승민 중심으로 개혁야당 분가 만들어야”

민주평화당 분당사태의 여파가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까지 미치는 형국이다.

13일 바른미래당에선 민주평화당의 분당과 바른미래당내 갈등이 초래할 추후 정계개편의 방향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당내 대표적 호남계 인사인 박주선 바른미래당 전 국회부의장은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제3지대 빅텐트로 중도·실용·개혁·민생, 네가지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신진세력을 합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대신하는 정당으로 서자고 저는 주장해왔다”며 “이번에 평화당을 탈당한 분들도 그런 전체를 계산하고 탈당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관측했다.

박 전 부의장은 “바른미래당 또한 제3지대로 해체되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당내에선 아직 제3지대

빅텐트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당과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 논의를 해본 일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결말을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의장은 “저는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결과를 갖고 당이 통째로 참여하는 빅텐트가 돼야 한다. 그런 노력을 당내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저희 당이 어수선하고 난장판같이 됐다고 하지만 창당 당시 추구했던 정신과 가치 방향이 있다”며 “한국당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합쳐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 호남 의원들은 평화당쪽과 합쳐 새로운 제3지대, 도로 호남당을 말씀하는 분도 있고 한국당과 합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

도 있었다”며 “그런데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때 (다른 당과) 통합과 연대는 없다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언했다”고 통합론을 일축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 대안으로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이 힘을 합치고 대신 손 대표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고문 같은 역할을 맡고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합의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의견을 확대해 한국당을 대체하는 개혁적 야당 분가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명분이 ‘저 친구들(유승민계) 한국당과 합치려고 그래, 나를 제치고’ 그러니까 상투적 수법이다.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지만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는 대권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 자기 스타일 다 구기며 (한국당으로 가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제발 좀 물러나달라”며 “우리 바른미래당이 혁신하고 자강을 해야 야권 전체가 살고 우리 당 중심으로 구심력이 모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文대통령 “국민들, 日에 성숙 대응...100년전 선조같은 자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독립유공자 및 후손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들은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낮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연회에서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있는 자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라며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의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림에도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라며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디딤돌

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은 3.1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의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3·1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이 됐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들께서 언제나처럼 우리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고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與, 조국 사수 총력전...“좌익용공 조작 통하던 80년대 아냐”

### 황교안 겨냥 “근거없는 마타도어와 철지난 색깔선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 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황 대표를 겨냥해 “공안검사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를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면서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조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황 대표가 조 후보자를 향해 근거없는 마타도어와 철지난 색깔선동을 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허독한 고문과 조작사실이 폭로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사노맹 사건 관련자는 이명박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은 바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용공 조작이 통하던 80년대 아냐”라고도 했다.

## 하태경 “탈북모녀 아사, 北인권 민폐 취급한 文정부 비극”

###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는 것...文대통령 사과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40대 탈북여성인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탈북자와 북한인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모자(母子)에게 진심어

린 조문을 하고 사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탈북 모자가 굶어 죽는 충격적인 일은 이방인의 죽음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이 아닌 우리 국민인 탈북자까지 무관심하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탈북자를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자를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도 불참했다”며 “청와대와 통일부 모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공무원이 탈북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조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